

# 약식동일해석구문과 수의적 양화사인상

이상오  
(호원대학교)

Lee, Sang-Oh. 1998. On Sloppy Identity Reading Consturction and Optional Quantifier Raising. *Linguistics*, 6-1, 175-192. The aim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problem of quantifier raising in the minimalist theory by reviewing some principles accounting for some various constructions in English. Within Minimalist assumptions, the approach without recourse to quantifier raising (Hornstein(1995)) functions to handle the relative ambiguity problems of the quantificational expressions in double object constructions in English, coupled with the A-chain theory. On the other hand, Fox's(1995) "Ellipsis Scope Generalization(ESG)" following economy principle and parallelism condition handles the scope ambiguity problems occurring in VP ellipsis constructions based on "interface economy" allowing optional quantifier raising. Also, VP ellipsis constructions containing scope ambiguity and sloppy identity reading are shown to be accounted for not by c-command requirement only but by the account incorporated with ESG. (Howon University)

## 1. 머리말

본 논문은 최소이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LF에서의 양화사인상 문제를 여러 가지 구조를 분석해 봄으로써 양화사인상의 필요여부를 논의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 논의를 뒷받침하는 원리를 살펴봄으로써 그 타당성을 각각 검증하며 그 문제점을 논의하는데 목적을 둔다. 최소이론은 양화사의 인상문제를 일관성조건(Uniformity Condition)에 의하여, 어떤 문법적 운용이 아무 이유없이 문자화 이전에만, 또는 문자화 이후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면 일관성조건을 어기는 것이 되어, 양화사인상은 논리형태에만, 즉 문자화 이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양화사인상의 설정은 불가능함을 주장한다. 한편, Reinhart(1996)의 양화사인상에 대한 논거는 접합점경제이론(Interface Economy)에 의한 것인데, 접합점경제이론은 상대적이며 수의

적이어서 양화사인상은 경제원리를 준수하면서 수행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화사인상은 수의적으로 가능한 성격을 띠게 된다.

여기서는 양화사를 포함하여 상대적 작용역이 논의되는 문장의 중의성을 이중목적어구문, 약식동일해석(sloppy identity reading)/엄밀해석(strict reading)구문, 동사구생략구문, 약식동일해석이 이루어지는 동사구생략구문을 그 자료로 분석하면서 뒷받침하는 이론들을 논의하고 그 문제점을 살펴본다.

## 2. 비양화사인상과 이중목적어구문

### 2.1. 최소이론의 일관성조건과 양화사인상

이동이 문자화 이전에 적용될 것인가 또는 이후에 적용될 것인가는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이동이 원칙적으로 문자화 이전에도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최소이론에서 일관성조건(Uniformity Condition)이라고 한다. 따라서 어떤 문법적 운용이 아무 이유없이 문자화 이전에만, 또는 문자화 이후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면, 이는 일관성조건을 어기는 것이다. 소위 양화사인상은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양화사인상은 아무 이유 없이 논리형태에만, 즉 문자화 이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최소이론에서는 종래의 양화사인상의 설정은 불가능하고, 그 대신 양화사자질(quantifier feature)에 입각한 유인(attract)이 설정된다.

최소이론에서 논리형태 운용은 최소화되어 있다. 가장 이상적인 최소화는 아예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최소이론에서는 연산체계의 일반적 점검 운용 이외에 추가적 논리형태 운용은 없다는 가설을 가능한 한 밀고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종래의 소위 양화사인상도 논리형태 의문사 이동도 없다는 가설을 밀고 나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왕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연산체계의 일반적 점검운용과 개념-의도 체계의 해석 체계만으로 종래의 양화사인상이나 논리형태 의문사이동의 역할이 완전 흡수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Hornstein(1995)의 분석은 이중목적어구문을 소절에 접근시켜 분석한 Kayne(1984)과 Stowell(1983)의 제안에 근거한 A-연쇄이론과 함께 양화사인상이론을 제거하는 한 방법이 된다.

## 2.2. 이중목적어구문과 양화사의 작용역문제

Hornstein(1995)은 양화사의 LF A'-이동을 양화사인상과 같은 LF규칙을 설정하지 않고 분석한다. Chomsky(1993: 28)는 A-위치와 A'-위치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다. A-위치는 L-관련된 위치이며 A'-위치는 L-관련된 위치가 아닌 위치로 말하고 있다.<sup>1</sup> CP의 SPEC 위치는 L-관련된 위치가 아니다. 따라서 wh-이동이 대치(substitution)과정이라 할 지라도 의문사는 A'-위치로 이동해 간다.

Hornstein(1995)은 양화사인상이론은 최소이론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LF에서의 양화사인상 후의 부가과정이 형태론적으로 동기화된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다. 의문사 이동은 전형적으로 형태론 상으로 동기화되어 있다. 그리고 의문사구는 특별한 착지점(landing site)을 갖는다. 그러나 양화사인상은 형태론적 촉매자가 없어서 이동에 대한 특별한 표적이 없다라는 것이다.

Hornstein은 양화사의 작용역문제를 부가나 A'-이동과정 하에서 분석하지 않고 최소주의의 정신으로 재분석한다. 그래서 상대적 작용역을 최소이론의 정신과 부합하는 몇 가지 가정을 토대로 A'-연쇄가 아닌 A-연쇄의 속성으로 귀착시키면서 분석한다. 첫째, A-연쇄의 구성요소는 한 요소를 제외한 어떤 구성요소도 삭제될 수 있다. 즉, A-연쇄는 적어도 한 요소를

1. 어떤 위치가 지정어의 위치이거나 어휘 자질(=V, N, A, P, AGR, T)을 갖는 범주의 보어이면 그 위치는 L-관련되어 있다. 최소이론에서 논항위치와 비논항위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i) L-관련성(L-relatedness)  
어휘범주(lexical category)의 자질, 즉 어휘자질(lexical feature, L-feature)을 내포하는 핵범주의 지정어와 보충어는 L-관련된 위치이다.
- (ii) 논항위치는 L-관련된 위치(L-related position)이고, 비논항 위치는 L-관련되지 않은 위치(non-L-related position)이다.

“어휘자질을 내포하는 핵 범주”에는 어휘범주(=N, V, A, P)뿐만 아니라 AGR, T, D등의 기능범주(functional category)도 포함된다. 왜냐하면, AGR과 T가 내포하는 동사 자질(V-feature)도 D가 내포하는 명사자질(N-feature)도 어휘자질(L-feature)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C와 NEG은 어떠한 어휘자질도 내포하지 않으므로 “어휘자질을 내포하는 핵 범주”가 아니다. 따라서, C와 NEG의 지정어와 보충어는 비논항 위치이고, AGR<sub>o</sub>의 지정어는 논항 위치이다.

취해야 한다는 가정이다. 둘째, 양화사의 상대적 작용역은 성분통어개념에 입각하여 삭제과정을 거친 후 LF에 문법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성분통어로 정의되는 양화사의 상대적 작용역의 상호관계는 다음과 같다.

- (1) 양화사는  $Q_1$ 은 그것이 또 다른 양화사는  $Q_2$ 를 성분통어해야  $Q_2$ 에 대해서 더 넓은 작용역을 갖게된다.

셋째, 한정적 표현은 VP 외곽(shell) 외부에 자리잡는다.

또한 최소이론의 두 가지 가정을 사용한다: (i) VP-내부주어가설. (ii) 이동은 복사와 삭제의 과정. 따라서 연쇄는 나중에 이동된 요소중 한 요소를 제외하고 삭제될 복사표현을 포함하게 된다. Hornstein은 이러한 가정들을 기본으로 하여 양화사인상을 가정하지 않고 양화사의 작용역문제를 다룬다. 다음의 중의적 문장을 보자.

- (2) Someone attended every seminar.

점검과정을 거친 후, (2)는 (3)의 LF표지를 얻는다.

- (3) [Ag<sub>S</sub> Someone [TP Tns [Ag<sub>O</sub> every seminar [VP someone [VP attended every seminar]]]]]

*someone*과 *everyone*이 이끄는 연쇄가 형성되고 각 연쇄의 삭제과정을 거치면 다음과 같은 구조들이 나온다.<sup>2</sup>

- (4)
  - a. [Ag<sub>S</sub> Someone [TP Tns [Ag<sub>O</sub> every seminar [VP (someone) [VP attended (every seminar)]]]]]]
  - b. [Ag<sub>S</sub> Someone [TP Tns [Ag<sub>O</sub> (every seminar) [VP (someone) [VP attended every seminar]]]]]]
  - c. [Ag<sub>S</sub> (Someone) [TP Tns [Ag<sub>O</sub> (every seminar) [VP someone [VP attended every seminar]]]]]]

---

2. 팔호안의 명사구는 삭제되는 표현을 나타낸다.

- d. [AgrS (Someone) [TP Tns [AgrO every seminar [VP someone [VP attended (every seminar)]]]]]]

(4d)는 *every seminar*가 *someone*보다 넓은 작용역을 취하는 해석이 가능한 구조이다. (4a-c)는 *every seminar*가 *someone*보다 좁은 작용역을 취하게 되는 구조들이다. 그러나 (4b, c)는 개념-의도 접합점(CI interface)에서 해석될 수 없다. 왜냐하면 가정에 따라 *every* 같은 양화사는 한정적 표현이기 때문에 해석받기 위해서는 삭제 후 VP 외곽의 외부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따라서 (4a)와 (4d)만이 (2)의 문장의 해석가능한 구조가 된다. 즉, 성분통어의 개념에 따라 (4a)는 *someone*이 (4b)는 *every seminar*가 넓은 작용역을 행사하는 해석이 나오게 된다.

이 중목적어구문에 대해서 Hornstein(1995)은 이 구문이 격을 점검받아야 할 두 개의 명사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격점검의 입장에서 이 구문의 구조를 재정비하고 있다. 우선 이 구문에서의 격점검은 지정어와 핵사의 일치(Spec-head agreement)의 과정이며 두 명사구의 격은 이 구문의 동사에 의해서 점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VP와 TP사이에 하나의 AgrP만을 허락한다면 다음의 구조가 된다.

- (5) [...[IP ... [AgrO [NP NP<sub>1</sub> [NP<sub>2</sub>]]]i [V+AgrO [VP ... V t<sub>i</sub>]]]]]]

(5)에서 NP<sub>1</sub>과 NP<sub>2</sub>는 NP<sub>1</sub>이 NP<sub>2</sub>에 부가되어 있으므로 둘 다 V+AgrO의 점검영역에 있게 된다. (5)의 구조는 근본적으로 Kayne(1984)의 이중목적어구문에 대한 소절분석을 따른 것인데 또한 소절에 대한 부가구조(adjunction structure)는 Stowell(1983)의 분석을 따른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분석들이 이중목적어구문의 격점검 문제를 최소주의이론으로 해결하는 데 잘 들어맞는다는 사실이다.

작용역의 문제로 돌아가 보면, 이중목적어구문에서 NP<sub>1</sub>은 NP<sub>2</sub>보다 넓은 작용역을 취해야 한다. 여기서의 작용역문제는 A-연쇄내의 구성요소들의 삭제에 달려 있다. A-연쇄의 고리(link)는 다음의 (6)에 나타나 있다.

- (6) [...[AgrO [NP NP<sub>1</sub> [NP<sub>2</sub>]]] [V+AgrO [VP ... V [NP NP<sub>1</sub> [NP<sub>2</sub>]]]]]]]

(6)에서 소절 전체가 A-연쇄의 고리가 된다. 즉, 이 A-연쇄는  $C = (\underline{NP_1} \ [NP_2], \ NP_1 \ [\underline{NP_2}])$ 가 된다. 삭제과정에 있어서 AgrO의 SPEC자리의 소절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동사 뒤의 소절을 삭제하든지 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요소가 지워지든지 두 명사구 작용역의 상호관계는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삭제 후 남은 요소는 두 명사구 *someone*과 *every book* 둘다 나란히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소절에서 *someone*은 *every book*을 성분통어하게 된다. 그러므로 *someone*만 *every book*에 대하여 넓은 작용역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음 (7)의 문장을 보자.

- (7) a. John gave *someone every book*.  
 b. John [[(*someone every book*)] [gave+AGrO [vp John gave [*someone every book*]]]]  
 c. John [[*someone every book*] [gave+AGrO [vp John gave [(*someone every book*)]]]]

결국 *someone every book*은 소절이며, 이것은 연쇄의 구성요소가 된다. A-연쇄는  $C = (\textit{someone every book}, \textit{someone every book})$ 이 된다. 삭제과정에 있어서 AgrO의 SPEC자리의 소절을 삭제하든지 (7b), 아니면 동사 뒤의 소절을 삭제하든지 해야 한다 (7c). 그러나 어떤 요소가 지워지든지 두 명사구 작용역의 상호관계는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삭제 후 남은 요소는 두 명사구 *someone*과 *every book*을 둘다 나란히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NP_1$ 은  $NP_2$ 를 성분통어하게 된다.  $NP_1$ 은  $NP_2$ 에 부가되어  $NP_2$ 에 의해 관할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NP_1$ 만  $NP_2$ 에 대하여 넓은 작용역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음 (8)의 문장을 보자.

- (8) a. Someone gave *everyone his report card*.  
 b. [(Someone) [[*everyone [his report card]*]] [someone gave [*everyone [his report card]*]]]]

(8b)의 LF구조에서 소절의 주어  $NP_1$ 이  $NP_2$ 에 부가되어  $NP_1$ 이 소절 밖의

작용역을 갖도록 한다. 즉, *everyone*은 *someone*을 성분통어하게 되어 넓은 작용역을 갖게 된다.

이에 반하여 이중목적어구문에 상용하는 PIO 구문은 Hornstein(1995)에서 다음 세 가지 가정 아래 분석한다. 첫째, 대부분의 전치사구는 그것이 VP 외곽의 외부에 부가 가능한 의미에서 일종의 부가어(adjunct)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전치사구의 목적어는 PP 밖의 SPEC 위치로 이동한다라는 가정 하에 이동 후의 구조는 지정어와 핵 사이의 일치에 관한 최소 이론의 한 일환으로 볼 수 있다라는 가정이다. 그 구조는 (9)에 보여진다.

- (9)  $[_{\text{Agr}} \text{Object}_i [P_j + \text{Agr} [_{\text{PP}} t_j t_i]]]$

셋째, 성분통어 개념은 (10)처럼 어휘투사(lexical projection)의 의미로 재정의 된다는 점이다. 즉 기능투사(functional projection)는 그 정의에서 제외된다.

- (10) A를 관할하는 모든 어휘투사들이 B를 관할할 때만 A는 B를 성분통어한다.

이 세 가지 가정하에 다음 문장들을 살펴보자.

- (11) a. Someone sang Stardust with every couple.  
b. John sang something for every couple.

(11a, b)는 *every*-구가 넓은 작용역을 갖는 것으로 해석 가능한 문장들이다. 다음의 (12a, b)는 위의 가정들 하에서 (11a, b)의 LF구조들이 된다.

- (12) a.  $[_{\text{AgrS}} (\text{Someone}) [_{\text{TP}} \text{past} [_{\text{AgrO}} \text{Stardust} [_{\text{VP}} [_{\text{VP}} \text{someone sang Stardust})] [_{\text{Agr}} \text{every couple} [_{\text{with+Agr}} [_{\text{PP}} (\text{with}) (\text{every couple})]]]]]]]$   
b.  $[_{\text{AgrS}} \text{John} [_{\text{TP}} \text{past} [_{\text{AgrO}} (\text{something}) [_{\text{VP}} [_{\text{VP}} \text{John sang something}] [_{\text{Agr}} \text{everyone} [_{\text{for+Agr}} [_{\text{PP}} (\text{for}) (\text{everyone})]]]]]]]$

위의 구조들에서 PP들은 VP에 부가되어 있다. 전치사의 목적어는 VP 외곽 내의 요소들 보다 넓은 작용역을 갖는다. 또한 Agr의 SPEC 위치로 부터 TP는 *every*-구를 관할하는 첫 번째 어휘법주가 된다. (12a, b)에서 *some*-구는 VP 외곽 내에 있으며 VP에 의해 관할된다.<sup>3</sup> 바로 이 점이 *some*-구가 *every*-구를 성분통어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 3. 접합점경제이론과 수의적 양화사인상

연산경제성(computational economy)이 연산체계(computational system)와 관련되어 있는 반면, Reinhart(1996)의 접합점경제이론(interface economy)은 접합점(PF interface/LF interface)과 관련이 있다. 또한 접합점경제이론은 상대적이며 수의적인 반면, 연산경제성은 절대적이며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Fox(1995)는 동사구생략구문(VP ellipsis construction)에서의 양화사의 작용역문제를 일반원리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이론에서는 경제원리의 정신에 입각한 양화사인상을 가정한다. 즉, 경제원리를 준수하면서 양화사인상은 수의적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약식동일해석(sloppy identity reading)구문을 살펴보고, 양화사를 포함하는 동사구생략구문내에서 약식동일해석과 엄밀해석(strict reading)의 중의성이 주어지는 문장이 약식동일해석의 도출을 가능하게 하는 Reinhart(1983)의 성분통어(c-command)에 근거한 원리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고, 바로 Fox(1995)의 원리를 용용하여 설명될 수 있음을 보인다.

#### 3.1. 약식동일해석구문과 양화사인상

한정명사구나 고유명사와 관련되어 있는 대명사는 지시적 해석(referential interpretation)과 결속변항해석(bound-variable interpretation)의 중의성을 띠게 된다(Reinhart(1983)). 이러한 중의성은 동사구가 생략된 구조에 나타난다.

---

3. Hornstein(1995)은 주어는 VP의 SPEC 안에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 (13) Felix hates his neighbours and so does Max.
- Felix hates Felix's neighbours and Max hates Max's neighbours.
  - Felix hates Felix's neighbours and Max hates Felix's neighbours.
- (14) John loves his mother and Bill does too.
- John loves John's mother and Bill loves Bill's mother.
  - John loves John's mother and Bill loves John's mother.

(13-14)는 각각 (13a,b), (14a,b)의 해석이 둘 다 가능한 충의성이 있는 문장이다. (a)의 해석을 약식동일해석(sloppy identity reading)이라 하며, (b)의 해석을 엄밀해석(strict reading)이라 한다. (Ross(1967)).

Reinhart(1983)는 (15)와 같이 대명사가 결속변항으로 해석받기 위한 대명사결속변항해석조건을 제시하였다.

- (15) 운용소명사구 O가 대명사 P를 성분통어(c-command)하면, P는 O에 의해 결속된 변항으로 해석된다.

Reinhart는 이 조건이 다음과 같은 약식동일해석구문에도 적용됨을 주장한다. 다음 문장들을 보자.

- (16) People from LA love its beaches and someone from NY does too.
- People from LA love LA's beaches and people from NY love NY's beaches.
  - People from LA love LA's beaches and people from NY love LA's beaches.
- (17) Someone from every western city loves its beaches and someone from every eastern city does too.
- Someone from every western city loves every western city's beaches and someone from every eastern city loves every eastern city's beaches.

- b. Someone from every western city loves every western city's beaches and someone from every eastern city loves every western city's beaches.

(16)은 (16b)의 엄밀해석만 가능하다. 즉 (16a)와 같은 약식동일해석은 허락되지 않는다. 반면, (17)은 (17a,b)의 약식동일해석과 엄밀해석이 둘 다 가능하다. Reinhart는 약식동일해석구문이 (15)의 조건을 따르고 있음을 주장한다.

그 조건을 위의 (16-17)의 구문에 적용시켜보면, 고유명사와 같은 비양화 표현은 LF에서 작용역위치로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가정하에, (16)에서 LA는 LF에서 표면구조에서의 그 위치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LA는 대명사 *it*을 성분통어하지 못한다. 그러나 (17)에서 *every city*는 LF에서 (18)처럼 작용역위치로 인상된다.

- (18) [IP every western city; [IP [someone from t<sub>i</sub>; [t<sub>i</sub> loves its beaches....

(18)에서 인상된 *every western city*는 대명사 *it*을 성분통어하게 된다. 따라서 (15)의 조건에 의하여 (17)에서 *it*은 *every western city*에 의해 결속된 대명사변항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따라서 약식동일해석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다음 (19)문장이 엄밀해석만 가능하고, (20)문장이 약식동일해석과 엄밀해석이 둘 다 가능함이 설명된다.

- (19) People from LA love that city's beaches and people from NY do too. (엄밀해석만 가능)
- (20) People from every western city love that city's beaches and people from every eastern city do too. (약식동일해석도 가능)

### 3.2. 동사구 생략구문에서의 양화사의 작용역과 중의성문제

Fox(1995)의 이론은 양화사의 작용역은 최소성이론의 경제원리를 준수하여 다르게 된다는 것이다.<sup>4</sup> Fox(1995)는 양화사를 포함하는 동사구생략구문의 중의성여부를 분석, 설명하는데 다음과 같은 생략구문 중의성 일반원리(Ellipsis Scope Generalization: ESG)를 사용한다.

#### (21) 생략구문 중의성의 일반화원리 (ESG)

두 양화사가 있고, 그 중 한 양화사가 생략구문의 선행사 VP안에 있을 경우, 그 두 양화사의 상대적 작용역은 평행적 이질성이 생략된 VP내에서 의미적 효과가 초래된다면, 표면구조의 성분통어관계와는 다를 수 있다.

ESG는 두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 하나는 경제원리이며, 다른 하나는 생략 표현과 그 선행사 사이의 평행성을 요구하는 평행성조건(Fiengo and May: 1994)이다. 평행성조건은 다음과 같다.

#### (22) 평행성조건 (Parallelism Condition)

양화사인상과 같이 한쪽 절에 적용되는 모든 LF 운용은 또 다른 절에도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두 원리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서로 상호 작용하여 ESG를 구성한다. 경제원리를 따르면, 목적어는 양화사인상에 의해서 주어를 넘어서 이동될 수 있다. 이때는 조건이 따로는데, 만일 이 이동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원하는 해석을 얻을 수 없을 경우만 주어를 넘어 양화사인상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즉, 이동하지 않고도 원하는 해석을 도출해 낼 수 있다면 굳이 이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평행원리로부터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나온다. 양화사인상이 어떤 한 절에서 이루어졌을 때 또 다른 절에서 목적어가 주어를 넘어서 양화사인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

---

4. 최소이론(Chomsky: 1993)에서 경제원리는 도출에 있어서의 경제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Use as few steps as possible in deriving an output representation."

뒷절이 중의적인 해석이 나온다면 경제원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앞 절은 평행성만 유지된다면, 작용역에 있어서 상대적인 작용역을 둘 다 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만일 뒷절이 중의적이지 않으면, 경제원리는 뒷 절에서 원거리 양화사인상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평행성조건은 앞절에서도 원거리 양화사인상을 허용하지 않게 된다. 결국, 앞절은 중의적인 해석이 나올 수 없게 된다.

양화사인상이 경제원리를 준수하고 이 원리를 따르는 지시 집합(reference set)이 의미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도출만을 포함한다고 가정하면, 양화사는 주어진 해석을 위해서는 가장 단거리이동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sup>5</sup> 따라서 원거리이동은 중의성을 초래하게 된다. 생략구문에서 생략된 VP를 포함하는 문장에서는, 주어를 넘는 양화사인상은 그 양화사인상이 단거리 이동으로는 원하는 해석이 얻어질 수 없을 때만 허락된다. 즉, 양화사인상이 생략된 VP를 포함한 문장에 있어서 의미해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때는 그 양화사인상이 허가되지 않는다. 평행원리에 주어지는 제약에 따라, 주어를 넘는 양화사인상은 선행사 VP를 포함하는 문장에서는 허가되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원리로부터 생략구문 중의성 일반원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경제원리와 평행성원리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생략구문 작용역 일반원리로 다음 문장들을 설명해 내는지 보자.

- (23) a. A doctor will examine every patient, and a nurse will too.  
(중의적)
- b. [<sub>IP</sub> every patient; [<sub>IP</sub> a doctor will [<sub>VP</sub> examine <sub>t<sub>1</sub></sub>]]) and  
[<sub>IP</sub> every patient; [<sub>IP</sub> a nurse will [<sub>VP</sub> examine <sub>t<sub>2</sub></sub>]])]

(23b)는 (23a)의 LF이다. (23b)는 뒷절 *a nurse will examine every patient*가 중의적인 절이기 때문에 *every patient*가 주어를 넘어 양화사인

5. Fox(1995)에서 정의된 지시집합(reference set)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Condition on Reference Set

"The reference set includes only derivations that end up with the same semantic interpretation."

상을 해도 경제원리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앞절에서도 역시 뒷절과 같이 양화사인상을 해도 그 구조는 평행성조건을 위배하지 않는다. 따라서 (23a)는 중의적인 문장이 된다.

그러나, 다음 (24b)는 비중의적이다.

(24) a. A student likes every professor. (중의적)

b. A student likes every professor and hates the dean. (비중의적)

(24a)는 단문으로서는 중의적이다. 그러나 (24b)처럼 비중의적인 다른 절이 따를 때는 (24b)의 문장이 중의성이 없어진다. 뒷절이 비중의적이기 때문에 앞 절만 양화사인상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경제원리에도, 평행성 조건에도 위배되기 때문이다. 다시 다음 문장들을 보자.

(25) Some boy admires every teacher and Mary does too.

(26) Some boy admires every teacher and some girl does too.

(25)는 다음과 같은 LF를 도출해낸다.

- (27) a. some boy<sub>1</sub> [ every teacher<sub>2</sub> [ t<sub>1</sub> admires t<sub>2</sub> ] ] and Mary<sub>1</sub> [every teacher<sub>2</sub> [ t<sub>1</sub> admires t<sub>2</sub> ] ]
- b. \*every teacher<sub>2</sub> [ some boy<sub>1</sub> [ t<sub>1</sub> admires t<sub>2</sub> ] ] and every teacher<sub>2</sub> [ Mary<sub>1</sub> [ t<sub>1</sub> admires t<sub>2</sub> ] ]
- c. \*some boy<sub>1</sub> [ every teacher<sub>2</sub> [ t<sub>1</sub> admires t<sub>2</sub> ] ] and every teacher<sub>2</sub> [ Mary<sub>1</sub> [ t<sub>1</sub> admires t<sub>2</sub> ] ]
- d. \*every teacher<sub>2</sub> [ some boy<sub>1</sub> [ t<sub>1</sub> admires t<sub>2</sub> ] ] and Mary<sub>1</sub> [ every teacher<sub>2</sub> [ t<sub>1</sub> admires t<sub>2</sub> ] ]

여기서 평행성원리는 (c), (d)와 같이, 지표가 보여주듯, 비평행적인 작용역 관계를 일단 배제시킨다. 경제원리는 (27) 문장의 뒷절이 중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주어를 넘어서 목적어가 양화사이동을 겪게 되는 (27b)와 같은 도출을 또한 배제시킨다. 따라서 (27a)의 LF만이 적격한 구조로 남게 되어

## 188 이 상 오

(25) 문장은 결국 작용역에 있어서 비중의적인 해석을 보이게 된다.

(26)은 다음과 같은 LF를 도출해 낸다.

- (28) a. some boy<sub>1</sub> [ every teacher<sub>2</sub> [ t<sub>1</sub> admires t<sub>2</sub> ] ] and some girl<sub>1</sub> [every teacher<sub>2</sub> [ t<sub>1</sub> admires t<sub>2</sub> ] ]]  
b. every teacher<sub>2</sub> [ some boy<sub>1</sub> [ t<sub>1</sub> admires t<sub>2</sub> ] ] and every teacher<sub>2</sub> [some girl<sub>1</sub> [ t<sub>1</sub> admires t<sub>2</sub> ] ]]  
c. \*some boy<sub>1</sub> [ every teacher<sub>2</sub> [ t<sub>1</sub> admires t<sub>2</sub> ] ] and every teacher<sub>2</sub> [ some girl<sub>1</sub> [ t<sub>1</sub> admires t<sub>2</sub> ] ]]  
d. \*every teacher<sub>2</sub> [ some boy<sub>1</sub> [ t<sub>1</sub> admires t<sub>2</sub> ] ] and some girl<sub>1</sub> [every teacher<sub>2</sub> [ t<sub>1</sub> admires t<sub>2</sub> ] ]]

(26)에서 앞뒤 절이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원리는 양 절에서 양화사인상을 허용한다. 평행성원리는 (c), (d)와 같이, 지표가 보여주듯, 비평행적인 양화사인상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28a-b)의 LF만이 적격한 구조로 남게 되어 (25)는 결국 작용역에 있어서 중의적인 해석을 보이게 된다.

### 3.3. 약식동일해석과 경제원리(ESG)

약식동일해석이 이루어지는 동사구생략구문을 살펴보자.

- (29) Someone from every country loves its country and someone from every city does too.  
(30) Someone from every country loves its country and someone from Seoul does too.

(29-30)의 LF는 (31)의 형태이다.

- (31) [<sub>IP</sub> Every country; [<sub>IP</sub> [someone from t<sub>1</sub>]; [t<sub>1</sub> loves its country]]] and...

Hornstein(1995)의 이론에 따르면, (31)에서 인상된 *every country*는 대명사 *it*를 성분통어하게 된다. 그러므로 (29)는 (32)와 같은 엄밀해석뿐만 아니라 (33)의 약식동일해석도 가능하게 된다.

- (32) Someone from every country loves someone's country and someone from every city loves someone's country.
- (33) Someone from every country loves someone's country and someone from every city loves someone's city.

(30) 역시 Hornstein(1995)의 이론에 따르면 역시 약식동일해석이 가능해야 한다. 즉, (34)의 엄밀해석과 (35)의 약식동일해석이 동시에 가능해야 함이 예측되나 사실은 (34)의 엄밀해석만 가능하다.

- (34) Someone from every country loves someone's country and someone from Seoul loves someone's country.
- (35) Someone from every country loves someone's country and someone from Seoul loves Seoul.

위의 예들은 Fox(1995)의 이론을 뒷받침해 준다. 즉, (29)의 경우에는 뒷절 (30)은 중의성을 초래한다.

- (36) Someone from every city loves its country.

즉, *every city*가 *someone*보다 넓은 작용역을 가질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Fox의 이론에 따르다면, (29)는 앞절의 해석 역시 중의성을 도출해 낸다고 예측할 수 있다. 반면, (30)의 뒷절 (37)은 중의성을 초래하지 않는다.

- (37) Someone from Seoul loves its country.

따라서, (30)에서 앞절의 해석은 (30)의 LF에서 *every city*가 주어를 넘어 양화사이동을 한 구조는 경제원리와 평행성조건을 함께 어기게 된다. 그

러므로 (30)은 중의성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예측할 수 있다.

결국, (29)와 (30)에서 약식동일해석의 가능 여부는 단순히 Hornstein(1995)의 이론으로만 설명할 수 없고 Fox(1995)의 이론에 따라 생략구문 작용역의 일반성원리(ESG)에 의존하여 경제원리와 평행성조건으로 같이 설명되어져야 한다.

#### 4. 문제점과 맷음말

접합점경제이론에서의 수의적으로 적용되는 양화사인상은 경제성원리를 준수하면서 양화사인상이 이루어진다. 양화표현을 포함하는 동사구생략구문의 중의성해석이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동사구가 생략된 뒷절의 중의성의 여부를 우선 진단해 보아야 한다. 즉, 그 뒷절이 중의적인 해석이 도출되지 않으면 앞절에서도 역시 양화사의 이동이 굳이 일어날 필요가 없고, 만일 양화사인상이 이루어진다면 그 LF구조는 경제원리나 평행성조건을 위배하게 된다. 그러나 동사구가 생략된 뒷절이 중의적인 해석이 도출된다면, 즉 목적어 위치의 양화사가 주어 위치의 양화사보다 넓은 해석이 주어진다면, 앞절에서도 양화사인상은 불가피하다. 물론 이 때에도 평행성조건은 준수되어야 한다.

문제는 뒷절이 중의적인 해석이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정할 때, Fox(1995)의 이론을 따를 때, 역시 양화사인상의 수의성여부가 여기에도 적용되느냐 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양화표현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문일 경우에, 그 중의성을 설명하려면, 또 다시 양화사의 인상을 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때, May(1985)의 이론이나 다른 양화사인상을 가정하는 다른 원리들에 의존하여 그 중의성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Fox의 이론은 동사구생략구문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면서 그 중의성을 논의하지만, 결국 단문으로서의 뒷절의 중의성여부를 다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양화사의 인상여부는, 종전의 이론으로는 LF에서 양화사의 인상은 의무적인 것으로 되어 있고, Hornstein(1995)에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Reinhart(1996)에서는 접합점경제원리를 따라 수의성이 주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최소이론에서의 양화사인상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이 결국 종전의 LF에서의 의무적인 양화사인상으로의 귀환의 논리에 접어든다.

## 참 고 문 헌

- Aoun, J. and A. Li. 1989. "Constituency and Scope," *Linguistic Inquiry* 20.
- Aoun, J. and A. Li. 1993. *Syntax of Scope*, MIT Press, Cambridge, Mass.
- Chomsky, N. 1986b. *Barriers*, MIT Press, Cambridge, Mass.
- Chomsky, N. 1991. "Some Notes on the Economy of Derivation," in R. Freidin (ed.) *Principles and Parameters in Comparative Grammar*, MIT Press, Cambridge, Mass.
- Chomsky, N. 1993.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in K. Hale and S.J. Keyser eds. *The View from Building 20*, MIT Press, Cambridge, Mass.
- Chomsky, N. 1995. *The Minimalist Program*, The MIT Press.
- Diesing, Molly. 1992. *Indefinites*. MIT Press: Cambridge, Mass.
- Fiengo R. & R. May. 1994. *Indices and Identity*, MIT Press.
- Fox, D. 1995. "Economy, Scope and Semantic Interpretation: Evidence from VP Ellipsis," NELS 25.
- Hoffman, M. 1991. *The Syntax of argument-structure-changing Morphology*, Doctoral dissertation, MIT.
- Hornstein, N. 1995. *Logical Form*, Blackwell Publishers Inc. Cambridge Mass.
- Kayne, R. 1984. *Connectedness and Binary Branching*, Dordrecht: Foris.
- Keenan, E. 1971. "Names, Quantifiers and a Solution to the Sloppy Identity Problems," *Papers in Linguistics*, vol.4.2.
- Larson, R. 1988. "On 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s," *Linguistic Inquiry* 19.3.
- May, R. 1977. "The Grammar of Quantification," Ph.D. dissertation, UCLA, Los Angeles.
- May, R. 1985. *Logical Form*, MIT Press, Cambridge, Mass..
- Partee, B. 1978. "Bound Variables and Other Anaphors" in D. Waltz (ed.) *Proceedings of TINLAP*, 2., Univ. of Mass., Amherst.
- Pesetsky, D. 1994. *Zero Syntax*, MIT Press, Cambridge, Mass.
- Pica, P. 1994. "On the Disjoint Agreement Principle"
- Pica, P. and W. Snyder. 1994. "Weak Crossover, Scope, and Agreement in a

- Minimalist Framework," *Proceedings of WCCFL 13*, Stanford.
- Reinhart, T. 1983. *Anaphora and Semantic Interpretation*, Croom Helm, London.
- Reinhart, T. 1996. "Interface Economy," presented at 1996 Seou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nerative Grammar.
- Rizzi, L. 1990. *Relativized Minimality*, MIT Press, Cambridge, Mass.
- Ross, J. R. 1967. *Constraints on Variables in Syntax*, PhD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ss.
- Sag, I. 1976. *Deletion and Logical Form*, PhD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ss.
- Sportiche, D. 1994. "Adjuncts and adjunction," *GLOW Newsletter* 32. 54-55.
- Stowell, T. 1981. *Origins of Phrase Structures*, Ph.D. dissertation, MIT.
- Williams, E. S. 1977. "Discourse and Logical Form," *Linguistic Inquiry*, vol. 8.1.

573-718 전북 군산시 임피면 월하리 727

호원대학교 인문사회학부 영어과

E-mail: lso@sunny.howon.ac.kr

Fax: +82-654-450-7450